

췌! 조용히 해봐 나무들이 숨쉬네

어린이 불교생태학교 현장



결(왼쪽)이와 현구(오른쪽)가 청진기를 대고 나무가 물을 마시는 소리를 듣고 있다. '뭔가 찾아 내겠다'는 듯한 표정이 진지하다. 아이들은 "빨대로 우유를 마실 때와 같은 소리가 들린다"며 즐거워했다.

완연한 봄기운을 느낄 수 있었던 4월 넷째주 주말, 전국은 봄을 만끽하기 위해 나온 상춘객들로 들쭉였다. 이날은 특히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된 월1회 학교 토요일 휴업일이어서 가족단위의 인파가 많이 몰렸다. 이러한 가운데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가 마련한 '어린이 불교생태학교' (이하 생태학교)가 4월 23-24일 부안 내소사 일원에서 열렸다. 토요일 휴업일에 맞춰 불교문화를 체험하고 사찰생태환경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30여명의 학부모와 아이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아들 용기와 함께 생태학교에 참가한 김옥희(45·서울 은평구 대조동)씨는 "사찰이라는 공간에서 불교문화를 배우며 학생들과 함께하니 중요한 공부라 되었다"며 "전면 토요일 휴업에 대비해 불교생태학교와 같은 알찬 프로그램이 많이 생겼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갯벌에서 '게'를 관찰하는 모습

#낮설지만 신기하기만 한 '사찰'

4월 23일 서울에서 4시간 버스를 달려 도착한 부안. 부안은 산과 들과 바다가 모두 있는 지역으로 다양한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몇 안되는 곳이다. 참가자들은 8ha에 이르는 넓은 부지에 조성된 곱소연전을 보고 내소사에 도착했다. 템플스테이 박장으로 옷을 갈아입고 대웅전에 모셔진 부처님께 인사를 올린 참가자들은 주지 진원 스님으로부터 내소사 역사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내소사는 해구두타 스님이 소래사라는 절을 세운데서 유래합니다." 스님의 설명이 계속되자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발담을 뛰어 다니던 영서(8·서울 미동초1)가 "스님 언제 끝나요?", "스님은 왜 대머리에요?" "부처님 얼굴은 왜 황금색이에요?" 등의 질문을 쏟아낸다. 대웅전에서 의 사찰소개가 끝나고 전각들에 대한 안내가 계속됐다.

참가자들은 스님과 함께 불래루, 3층 석탑, 설선당, 무설당, 불래선원 등을 둘러봤다. 엄마와 함께 생태학교에 참가한 다슬(13·용인 서전초6)이는 "절에 처음 와서인지 모든 것이 낯설지만 신기하기도 하다"며 호기심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다슬이는 "이렇게 자주 오다 보면 스님과 친해질 수 있고 또 절도 친숙해질 것 같다"고 흐뭇해한다.

불교환경연대, 토요일 휴업일 이용 내소사에서 템플스테이 학부모·학생 함께 30여명 참여 "보고 듣는 모든게 새롭고 즐거워"

#나무들이 물먹는 소리가 들려요!

참가자들은 사찰을 둘러본 이후 절 앞 전나무 숲으로 자리를 옮겼다. 숲 속 생명들과 호흡을 같이하고 그들이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다. 참가자들은 먼저 청진기를 이용해 나무들이 물을 마시는 소리를 듣는다. 결(8·일산 황릉초1)이와 현구(9·서울 광희초2)는 작은 풀꽃부터 굵은 나무, 얇은 나무 등을 옮겨 다니며 청진기를 계속 대본다. 둘은 "빨대로 우유를 먹을 때와 같은 소리가 들린다"며 즐거워한다.

용기(13·서울 대조초6)도 "죽은 나무에서는 물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며 "모든 나무들에서 물을 먹고 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으면 좋겠다"고 아쉬워했다.

청진기 놀이에 이어 참가자들은 생태해설가 이현숙(43)씨의 설명에 따라 '애벌레놀이'를 했다. 작은 손거울을 코에 대고 거울을 보며 앞사람의 등에 손을 올린 채 한 걸음씩 옮기는 것이 쉽지 않다. 이현숙씨는 "걸음을 옮기는 것이 쉽지 않은 것처럼 애벌레와 같은 작은 생명들에게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아이들은 이렇게 자연과 하나가 되고 또 생명의 소중함을 배워갔다.

#108배와 차담으로 마음을 모은다

저녁 공양 후 참가자들은 템플스테이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혜승당에 모였다. 공이 불교환경연대 정성운 사무처장의 집전으로 108배가 시작됐다. 일 배를 할 때 마다 "하나, 둘, 셋..."을 함께 따라하던 아이들의 목소리는 50배가 넘어서 사라졌다. 좌복에 쓰러져 일어날 줄 모르던 아이들이 끝났다는 엄마 아빠의 말에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일어났다.

첫날 마지막 일정으로 마련된 차담(茶談) 시간. 진원 스님과 아이들이

마주 앉은 찻상을 비롯해 4개의 찻상 주위에 참가자들이 둘러앉았다. 상(床)에 앉아 지난 하루를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이들의 학교생활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엄마 아빠들의 모습이 정겹다.

이들 경민이와 함께 생태학교에 참가한 임인숙(34·서울 관악구 신림동)씨는 "매월 마지막 주가 되면 아이들과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며 "템플스테이도 하고 자연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에 와서 만족스럽다"고 평했다.

#새만금 갯벌에서 생명을 찾다

이튿날 아침 일찍 발우공양을 마친 참가자들은 삼보일배로 생명의 상징이 된 새만금 갯벌을 찾았다. 갯벌에 초라하게 서있는 장승들처럼 갯벌은 이미 죽어가고 있었지만 납작게, 갯고동, 비트리 등의 바다 생명들은 아이들의 시선을 잡아끈다.

비이커에 게를 담아 관찰하던 무연(12·서울 발산초5)이는 "새만금 공사로 다 사라졌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게가 있는 줄 몰랐다"며 "갯벌과 게 모두 죽지 않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어느덧 무연이는 자연과 하나가 된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타불이(自他不二)가 아닐까?

마지막 일정으로 금강철새조망대에 들른 참가자들은 독수리, 말뚝가리, 수리부엉이, 공작 등의 새들을 본다. 가장자리 전지관에서 우리의 내부구조를 둘러본 세민(12·천안 불당초5)도 "오리목속의 여러 기관들을 지나오니 기분이 이상하다"며 즐거워했다. 그러나 신기해하는 아이들과 달리 학부모들은 "너무 좁은 곳에 새를 가둬두어 안타깝다"고 씩씩해하기도.

1박2일의 다소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30여명의 참가자들은 많은 것을 배웠다며 졸업(을)을 아쉬워했다. 그리고 7월 26-28일 여주 신록사에서 열리는 여름 불교생태학교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각자의 가정과 학교로 발걸음을 돌렸다. 글·사진/부안=유철주 기자



이현숙(맨 앞)씨의 지도로 '애벌레놀이'를 하고 있는 생태학교 참가자들.

수미산, 서역남로 대장정 31일

티베트 수미산 순례는 자기 성찰의 길입니다. 이번 순례는 티베트의 라사에서 수미산으로 그리고 곤륜산을 넘어 중국의 타크라마칸 사막을 지납니다. 이어서 실크로드 상의 서역남로의 길을 따라 호탄, 니야, 미란의 고대유적을 따라서 둔황석굴에 까지 이르는 대장정으로 이와 같은 대장정은 한 마음 쉬고 가야하는 수행의 여정일 것 입니다. 티베트와 중국의 대륙을 누비는 수행의 길에 동참하실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출발일 : 2005년 7월 5일 ~ 8월 4일 (31일간)
- 일 정 : 성도-라사-장체-시가체-라체-사가-파양-수미산-구계왕국-알리-도마-다홍리탄-마자르-예청-호탄-민풍-체르첸-차르크리크-루오지양-하루고-둔황
- 안 내 : 이상원 011-352-3321
- 문의 및 접수 : (주)실크로드여행사 (02)720-960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앞

■ 수미산 여행은 많은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수미산여행은 수미산을 사랑하는 실크로드에 맡겨 주십시오.